여수 거문도항, 영해관리 항만으로 본격 개발

항만청, 2020년까지 1360억 투입 남해동부 요충지로

해경선 부두 건설·시설 정비…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3위에 오른 여수 거문도항이 영해관리 항만으로 본격 개발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14일 “최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거문도항에 어업지도선과 해경선 부두를 건설, 남해동부 영해관리 요충지역 항만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136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거문도항에는 1000t급 해경함선과 1200t급 어업지도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등 접안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거문리와 서도를 연결하는 삼호교 확장, 노후 항만시설 개량, 방파제 등 외곽안전시설 정비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수항만청은 거문도항 사업이 완공되면 영해관리 주요 항만으로써의 역할만이 아니라 여객부두, 보안부두, 화물부두 기능을 특성화해 운영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거문도의 특성을 더해 해양레포츠 등 편의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항만청은 앞서 올해 항만건설 예산으로 거문도항(방파제 3곳) 보강공사 53억원, 물양장 정비공사 20억원에 이어 여객선터미널 부잔교시설 정비를 위한 설계비 1억원과 공사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김홍주 항만공사과장은 “여객선터미널이 완공됨에 따라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및 선박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쾌속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공공용 부잔교시설 등을 설치해 높은 항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거문도를 비롯한 11곳의 주요 항을 영해관리 항만으로 지정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보성 벌교 친환경 딸기 ‘맛있잖아~’ 보성군 벌교읍 농민이 15일 수확한 친환경 딸기를 밭고랑에 수북히 쌓아놓았다.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지로 유명한 벌교에선 218 농가가 38ha에서 1350t의 친환경 딸기를 생산해 5월까지 출하한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kwangju.co.kr

전남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134억 투입

벼·밭작물 대상 공동육묘장·광역방제기 등 시설·장비 지원

내달 말까지 사업 신청

전남도는 올해 벼, 밭작물 등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34억원(보조 50%, 자담 50%)을 지원키로 하고 2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인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시설·장비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을별·들녘별 쌀 농업회사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 이용 조직에 지원해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벼, 밭작물 등 지역별 유망한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이나 기자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기계화율이 낮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업단지에는 논두렁 조성기와 논두렁 제초기 등을 지원해 노동력을 절감키로 했다. 또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조, 수수, 기장 등 토종 농산물의 소득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종자대, 농자재 등을 지원해 지역별로 특화된 품목을 선정, 단지화하도록 하면서 토종 농산물의 유전자원 확보·보전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은 2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 등을 거쳐 선정한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FTA 등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영의 규모화와 함께 단지별 기계화를 통해 공동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생산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여수시 ‘공직비리·위법행위’ 제보하세요

‘스마트365제보시스템’ 운영

여수시는 각종 공직비리나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365 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횡령 행위,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부실공사, 공직기강 해이 등 모든 비리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비리행위에 대해 시민제보 전용 스마트폰(010-9797-3636)으로 전화 또는 SMS 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하면 된다.

제보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감사담당관실 전담 직원이 신속 조사를 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통보된다. 특히 공금횡령, 금품수수, 향응 등 중대 비리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비밀유지는 물론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완도군, 양식어장 유비쿼터스 신기술 도입

완도군이 주요 양식어장에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도입, 양식어장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관리시스템은 해양환경 정보를 양식어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효과적인 어장관리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에 따르면 어·패류 양식어장에 최첨단 ‘U-IT(만능정보통신망) 기술을 도입해 수온·염분 등 해양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는 문자서비스,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으로 어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군은 국비 2억원 등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적조 발생 시기 전인 6월까지 완도권·노화권·, 동부권·청산권 등 4개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광양을 찾은 원주시청 육상팀이 15일 공설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응급환자 소생률 높이는 ‘U-119안심콜 서비스’

목포소방서, 본격 운영

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15일 “응급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응급환자의 정보 확인으로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U-119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U-119 안심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혜자 정보(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소방방재청 유비쿼터스 홈페이지 포털사이트(http : //u119.nema.go.kr)에 등록하고,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면 수혜자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목포소방서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급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소생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구축했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질병환자, 독거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 등도 등록할 수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양,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온화한 기후·편리한 시설…축구·육상 36개팀 맹훈련

광양시가 온화한 기후, 편리한 경기장, 친절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중등부 축구 16개 팀이 전용구장과 마동구장에서 전지훈련을 겸한 스토브리그를 펼치고 있으며 한국체대, 원주시청, 화성시청 등 초·중·고·실업 20여개 육상팀이 공설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제철야구장에선 최근 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광양진월중 야구팀이 수원장안고 팀과 교류전을 치르고, 수영·태권도·씨름 팀 등도 올 시즌 경기력 향상을 위해 광양시를 찾아 훈련중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탁구 스토브리그 참가를 위해 초등부 32개팀 230여명의 선수단이 13일부터 광양시를 방문해 전지훈련의 열기를 한층 북돋우고 있다.

광양시에 많은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끄는 것은 전국 최고의 일조량과 온화한 기온, 잘 갖춰진 체육 시설, 맛 좋고 풍부한 먹거리 등 비교우위의 전지훈련 여건과 시와 체육회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어우러진 결과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 아기 울음소리 커져간다

시, 출산장려금·육아용품 지원 효과

출생아수 지난해 680명으로 늘어나

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육아용품 구입 지원 등 출산장려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출생아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출산지원장려금 지급액이 지난 2011년 5억9550만원(530명)에서 2012년 4억7600만원(641명), 지난해에는 10억9800여만원(692명)으로 급증했다.

시는 지난 2005년 셋째 아이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난 2011년 첫째아이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웠다. 이후 2012년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 신생아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정한 뒤 5년간 10차례로 나눠 현금과 상품권으로 분할 지급해왔다.

시는 2012년 남양유업, LG생활건강과 출생아 육아용품 저가 구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출생아 가정에 분유와 기저귀, 물티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이 같은 다양한 대책으로 인해 지난 2011년 574명이었던 출생자는 지난해에는 680명까지 늘었다. 다만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를 인구증대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인구증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공공기관 이주가 본격화되는 만큼 혁신도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3월 30일 ~ 4월 2일 개최

군 추진위 일정 확정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동안 개최된다.

진도군은 15일 “지난 14일 군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축제 일정 및 세부 계획을 심의·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축제에서 군은 ‘바닷길 열림’을 활용한 핵심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민속문화 예술 특구에 걸맞은 지역 고유의 민속 문화 볼거리와 체험 코너 등을 늘리고 국내·외 홍보도 강화해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돼 2억5000만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받는 것은 물론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외국인 7만5000여명 등 51만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5000원권인 자유이용권 판매 수입금이 5억원이 넘는 등 축제를 통한 직·간접 경제적인 효과만도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의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로 길이 2.8km에 걸쳐 폭 40여m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개최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영암군, 전국 군단위 1위 영예

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

영암군이 201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IC) 평가에서 지방자치경쟁력 종합부문 군 단위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는 인적·토지·인프라·경제·재정·무형자원 등 경영자원부문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고, 행정 및 재정 운용, 산업경영, 경제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공공안전 등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상승부문에서도 영암군은 2012년에 비해 자치경쟁력지수 총점이 42.03점이 올라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8년 연속 보건복지분야 최우수 자치단체임을 입증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 대상을 비롯해 2013년에만 30개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해 6억여원의 사업비를 획득하는 등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 확보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남겼다.

한편,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조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지난 1996년 이후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새얼굴

“재범 방지 위해 세심한 노력”

김 영 준 해남교도소장

“세심한 교정교화를 통해 수용자들의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 김영준(58) 신임 해남교도소장은 교정·교화의 기본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소통을 통한 청렴한 교도 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재범 방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있는 근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김 소장은 지난 1989년 교정간부 31기로 임관한 후 2011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대전교도소 부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